



* 등급정보 (닭고기) *

▷ 21개 업체에서 생산한 261만4천수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결과, 1등급은 89만6천수(34.3%), 1등급은 164만2천수(62.8%)를 차지, 전월(21개 업체, 362만3천수)대비 27.8%(100만9천수) 감소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등급판정별 출현율		
		1등급	2등급	3등급
'10년 1월	2,614,420	896,475	1,641,845	76,100
	(100.0)	(34.3)	(62.8)	(2.9)
'09년 12월	3,622,816	1,444,842	2,017,824	160,150
	(100.0)	(39.9)	(55.7)	(4.4)
'10년 1월	2,614,420	896,475	1,641,845	76,100
	(100.0)	(34.3)	(62.8)	(2.9)

* 축산뉴스 (닭고기) *

↓ 닭고기 업체 올 사상최대 실적 낼 것

하림·마니커 등 닭고기업체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림·마니커·동우 등 닭고기 업체의 지난 2009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거둔 것으로 전망했다. BK투자증권은 하림의 200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27%, 685% 증가한 5천660억원, 5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HMC투자증권은 마니커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2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실적개선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 사료값 부담이 감소했지만 수요는 증가해 닭고기 값이 높게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닭고기 업체는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인데다 원종계(씨닭) 수입쿼터제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요건까지 갖춰 올해도 실적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미국산 닭고기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지속

올해 국내 수입 닭고기 시장의 미국산 점유율이 지난해 집계치인 42.2%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브라질산 닭고기도 공격적인 마

케팅 전략을 통해 수출시장을 적극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시장 확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농경연은 올해 닭고기 교역여건 전망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의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라질의 육류업체인 JBS-프리보이가 베르틴 및 필그림스 프라이드를 인수·합병하며 브라질의 수출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 세계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여파로 올 한해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환율하락으로 수입 닭고기 단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 중 미국산은 kg당 1천921원, 브라질산 2천955원, 덴마크산 3천251원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처럼 미국산 닭고기 수입단가가 낮게 전망된 이유는 한·미 및 한·EU FTA 타결로 미국 및 덴마크의 닭고기 관세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브라질의 관세율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농경연은 "국내 미국산 닭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2.2%를 넘어설 것이며 이로 인해 브라질의 판촉전략도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